

마크 제닝스 박사, 마크, 강의 16, 마가복음 9:30-10:31, 제자도, 이혼, 자녀, 부자 통치자

© 2024 Mark Jennings 및 Ted Hildebrandt

이것은 마가복음에 대한 그의 가르침에서 마크 제닝스 박사입니다. 이것은 세션 16, 마가복음 9.30-10.31, 제자도, 이혼, 자녀, 부자 통치자입니다.

9장에서 멈춘 곳에서 이어서, 우리는 믿음과 제자도에 대한 이러한 이해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또한 제자들이 예수를 따르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완전하고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사실, 그들은 종종 자신의 문화적 규범, 자신의 자존심, 자신의 오만함을 통해 사물을 이해합니다. 우리는 지난번 시간의 마지막에 자녀와 사회적 지위에 대한 가르침과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 존중하는 사람에 대해 다르게 생각하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 사이에 이러한 사회적 가치의 구별이 없어야 한다는 사회적 지위의 역전에 대해 조금 살펴보았습니다.

저는 이 아이디어를 다루고 싶은데, 마가가 요한과 나눈 대화에서 마가가 38절에서 우리에게 말한 것과도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마가가 요한과 나눈 대화에서 마귀를 행사하는 이 인물에 대해 말했거든요. 그래서 9:38에서 요한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당신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을 보고, 그가 우리를 따르지 않아서 막으려고 했습니다. 계속하기 전에 38절에서 흥미로운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드문 일로, 요한과 예수 사이의 대화에서 요한이 무언가를 언급합니다. 저는 요한이 이것을 언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이 귀신을 쫓아낼 수 없었던 이전 에피소드 때문이며,

예수는 그것이 기도를 통해서만 나올 수 있다고 말씀하셨고, 우리는 기도가 겸손과 신에 대한 의존의 표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그 귀신을 쫓아낼 수 없었던 제자 그룹에는 요한이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와 함께 있었고 변형에서 떠나던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그 제자들과 그 그룹에 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표면적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의존하지 않고 자신의 능력과 권능을 지나치게 신뢰하는 그 무리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기 38 절에서 우리는 요한 자신이 이 모든 일에서 완벽하게 깨끗하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요한은 그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을 보고 그를 막으려고 했다고 말합니다.

왜? 그가 우리를 따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언어가 그가 당신을 따르지 않았다고 말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하세요. 그가 우리를 따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여기서 그림을 보고 있는 것은 어떻게든 제자 그룹, 이 열두 명과 어울리지 않는 이 무리가 있고, 그들만의 또 다른 무리, 또 다른 추종자 무리가 있고 그는 당신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물어봐야 할 것 중 하나는 이것이 바울이 사도행전에서 언급한 스게와의 일곱 아들과 비슷한지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대답을 감안하면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수의 이름을 힘의 공식으로 사용하려고 하는 일곱 아들들에게 일어나는 일은 바울이 하는 것과 비슷하게 그들에게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옵니다. 악마가 이깁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그들의 옷을 벗기고 때리고 벌거벗은 채로 내쫓습니다.

그들은 귀신을 쫓아내고 있는 듯하고, 요한의 문제는 이 사람이 그들 중 하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표면적으로는 문제인 듯합니다. 물론 아이러니한 점은 제자들이 특정 귀신을 쫓아낼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었고, 여기 귀신을 쫓아내는 데 어느 정도 성공한 인물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의 대답은, 그를 막지 말라. 내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는 자는 곧 나를 악하게 말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수가 멈추는 것에 대해 언급하면서, 그는 그 사람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확인한다.

그는 사실 이 사람이 아마도 길 위에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그 언어를 사용할 수 있다면, 예수님에 대해 말하고 예수님을 선포하러 올 것입니다. 그리고 40절, 이 속담이 있습니다. 우리를 대적하지 않는 사람은 우리를 위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당신에게 속한 사람들을 당신의 그룹에 속하는지 여부에 따라 세지 말라고 말씀하신 방식입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이 사람은 나와 어울렸습니다. 그러니 그는 우리를 대적하지 않습니다.

그는 우리 중 하나입니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하였기 때문에 너희에게 물 한 잔을 주는 자는 결코 그의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넘어지게 하는 자는 차라리 큰 맷돌을 목에 걸고 바다에 빠지는 편이 그에게 나을 것이니라.

이제 저는 41절과 42절의 논리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의 상호관계에 대한 반응은 거부가 아닌 교화와 지원이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신이 나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마실 물 한 잔을 주는 사람은 옳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진술은 그의 보상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생각은 하나님의 백성의 일원이 되는 것을 즐기는 종말론적 보상입니다. 그 반대는 42절입니다. 나를 믿는 어린아이들 중 한 명이라도 넘어지게 한 사람은 맷돌이 물에 잠기는 편이 나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들이 이 작은 자들 중 한 명을 넘어지게 하여 심판을 받는 것보다 물에 빠져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작은 자의 생각은, 다시 말해서, 이 작은 자의 생각은 지위 언어입니다. 이 작은 자들은 무고한 자들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낮은 자들에 대한 것이거나, 넘어지기 쉬운 자, 어떤 종류의 죄에 빠지거나, 꾸지람을 받는 자들에 대한 것입니다. 아마도 이 우려는 특별한 열두 제자 중 특별한 세 명 중 한 명인 요한이 누군가에게 가서 멈추라고 말하는 것의 효과가 무엇인지에 대한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실제로 그리스도를 긍정하는 사람을 멈추게 하고, 그것이 그 사람이나 그와 비슷한 사람이 넘어지고, 믿음에서 멈추게 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그림 이 요한과 그들이 어떻게든 특별한 지위를 가지고 있고 누가 실제로 예수의 이름으로 일을 할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사람이라는 생각에 대한 질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탄의 왕국에 대항하는 이 위대한 전시와 이 엑소시즘과 이 전시가 예수와 연관되어 이 사람이 그들이 사역을 할 때 하던 바로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자세 대신, 그들은 그것에 문제가 있는 듯합니다. 어쩌면 그것이 그들 자신의 명예나 위대함의 감각을 앗아가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예수는 과장된 예를 연달아 말씀하십니다. 만일 당신의 손이 당신을 죄짓게 한다면, 그것을 잘라 버리십시오.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게헨나, 꺼지지 않는 불에 가는 것보다, 불구가 되어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당신에게 더 낫습니다.

네 발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잘라 버리라. 두 발로 지옥이나 게헨나에 던져지는 것보다 절름발이로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너에게 나으니라. 네 눈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그것을 뽑아 버리라.

두 눈으로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낫습니다. 지옥에는 벌레가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예수께서 요구하지 않는 것이 자해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제2성전 유대교에서는 금지된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는 과장된 표현으로 이렇게 말하는데, 손, 발, 눈을 사용함으로써 그는 사람의 전체성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손이 무언가를 하고 있다는 그림과 함께요. 발은 당신을 어딘가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눈은 시선입니다. 그래서 그는 제 생각에 그 사람 전체를 이해할 수 있는 세 가지 요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만약 당신 안에 당신이 진실을 추구하고, 이 맥락에서 당신 자신의 지위를 추구하고, 당신 자신의 영광을 추구하는 데 기여하는 것이 있다면, 당신은 그것을 긴급히 제거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게헨나와 지옥으로 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게헨나는 이 장소인데, 이 당시 제2성전에서 유대교는 신의 형벌을 상징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예루살렘 남쪽에 있는 계곡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가나안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던 곳이었습니니다.

요시아 왕이 하는 일 중 하나는 그 지역을 더럽혀서 그 관습을 멈추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움직이고, 실제 장소를 가리키지만, 이 시기의 문학을 살펴보면 그것은 또한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합니다. 제 말은, 그것은 종교적 장소에서 실제로 쓰레기 저장소, 매립지로, 그리고 이 심판의 상징으로 변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예수께서 9장을 마무리하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신의 것을 추구하는 것은 하나님에 의해 판단되는 자세의 유형입니다. 그리고 9장의 끝까지 이 모든 것은 제자도의 바로 이러한 요소, 기도, 의존, 예수가 누구인지에 대한 인식, 나의 불신을 돕는 것, 나는 믿는다, 겐손에 대한 언급, 요한이 겐손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그 집단이 해 온 일을 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에 대한 언급입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가 논의를 시작했던 예수의 진술, 그의 두 번째 수난 예언, 즉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고 그들이 그를 죽일 것이라는 진술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3일 후에 죽임을 당하면 부활할 것입니다. 그 그림은 사람의 아들이 고통받고, 하나님에 의해 인간의 손에 넘겨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겸손과 겸손과 순종과 고통의 그림이며, 제자도이며, 제자들은 아직 이해하고 파악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지금 들어가서 9장을 떠나고 싶습니다. 마지막에 몇 가지가 있지만, 여기서 10장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의 다른 가르침을 살펴보고 싶습니다. 아시다시피, 10장 1-12절에서는 이혼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유대에서 예루살렘으로 여행하는 것을 배경으로 합니다.

1절: 그리고 그는 거기서 떠나 유대 지방과 요단 강 건너편으로 갔고, 군중이 다시 그에게 모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첫 8장에서 본 것과 유사한 유형의 상호 작용, 즉 예수께서 성경에 대한 이해를 놓고 종교 지도자들과 상호 작용하실 것이라는 지시를 받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어울리지 않으며 마가복음은 실제로 첫 8장에 속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우리가 보게 될 것 중 하나가 예수께서 여기서 이혼에 대해서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점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는 또한 제자들에게 이혼에 대한 가르침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8장 이후에 본 패턴, 즉 제자들에게 주신 가르침과 맞아떨어집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단순한 갈등 이야기 등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가 이것을 읽을 때, 마가복음에서 이혼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마태복음에서 발견되는 예외 조항이라고 알려진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에 도달했을 때 그것을 지적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알다시피, 마가가 예외 조항을 삭제했을까요? 마태가 예외 조항을 삽입했을까요? 아니면 예수께서 여러 차례 가르치셨지만, 한 번은 다르게 가르치셨을까요? 그리고 저는 우리가 이 문제를 생각할 때, 하나는 이혼을 다룰 때 이혼은 우리 중 많은 사람이 경험했거나 경험한 사람과 연결되어 있는 현실이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혼에 대한 성경의 목소리는 한 구절이나 두 구절에 국한되지 않고, 더 큰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이 아마도 사실이라고 생각하고, 심지어 예수님 자신도 여러 곳에서 이혼에 대해 가르치셨습니다.

하지만 1절에서 12절까지에서 본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는 그곳을 떠나 요단 건너 유대 지방으로 갔습니다. 군중이 그에게 모였고, 그는 다시 그의 관습대로 그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그를 시험하기 위해, 즉 그를 불신하게 할 방법을 찾기 위해, 남자가 아내와 이혼하는 것이 합법적인지 물었습니다. 이제, 그 질문 자체가 흥미롭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시는 곳은 이 지역입니다. 아시다시피, 요르단 강을 가로지르거나 요르단을 건너, 아마도 여기 파리아나, 어디든지,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지역에 있습니다. 헤롯 안티파스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심지어 이혼과 세례자 요한에 대한 이 질문과 그들이 왜 여기서 그것을 묻는지에 대해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저는 우리가 이 질문에 대해 생각해보기를 바랍니다. 남자가 아내와 이혼하는 것이 합법적인가? 제가 지적하는 이유는 그것이 일반적으로 묻는 질문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제2성전 유대교에서 논쟁이 된 질문은 합법적인가가 아니라 남자가 아내와 이혼하는 것이 언제 합법적인가였습니다. 따라서 그것은 율법이 이혼을 허용하는가, 토라, 구약성서가 아니라 언제 이혼을 허용하는가에 대한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을 하는 것조차 함정을 파는 것과 같은 설정일 수 있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이미 예수께서 이혼에 대해 가르치는 것을 들었을 것이고, 지금은 그분이 이혼에 반대한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하기를 원하는 영역에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들에게 대답했습니다. 모세가 너희에게 무엇을 명령했느냐? 이제 우리가 모세의 명령을 살펴볼 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주목하세요. 그는 단순히 모세가 무엇을 명령했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모세에서 그들에게 정확히 어디로 가야 하는지 말하지 않았습니다. 신명기에서 그는 그것을 조금 넓게 남겨두었지만, 바리새인들은 그가 신명기 24장 1-4절을 언급하고 있다고 이해했습니다. 그들은 모세가 남자가 이혼 증서를 써서 그녀를 내쫓는 것을 허락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신명기 24장의 이 구절은 모세가 이혼에 관해 명령을 내리는 내용을 말하고 있는데, 여자가 불쾌한 일을 하면, 사실, 신명기 24장의 맥락에 대해 조금만 생각해 보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신명기 24장 1-4절을 아주 빠르게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남자가 아내를 맞아들여 결혼했는데, 그녀가 그의 눈에 호의를 얻지 못하고 그녀에게서 어떤 음란함을 발견하면, 그는 그녀에게 이혼 증서를 써서 그녀의 손에 주고 그녀를 그의 집에서 내쫓고, 그녀가 그의 집에서 나가고, 그녀가 가서 다른 남자의 아내가 되고, 후자가 그녀를 미워하여 이혼 증서를 써서 그녀의 손에 주고 그녀를 그의 집에서 내쫓거나, 그녀를 아내로 삼은 후자가 죽으면, 그녀를 내쫓은 전 남편은 그녀가 더럽혀진 후에 그녀를 다시 아내로 삼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여호와 앞에 가증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주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에게 상속 재산으로 주신 땅으로 보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여기서 두 가지로 나눠서 말할 것입니다. 제2 성전 유대교의 논쟁의 주요 부분 중 하나는 음란함이 무엇인지 알아내려는 것이었습니다.

남자가 그녀에게서 음란함을 발견하고 그녀에게 이혼증명서를 썼다면, 그 남자는 어떤 종류의 음란함을 발견했다면 그녀에게 이혼증명서를 쓸 수 있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글쎄요, 문제는 무엇이 음란함인가였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논쟁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는 미슈나를 살펴보면, 특정 랍비였던 샤마이 학파는 음란함이 부정만을 의미한다고 말했고, 힐렐 학파는 음란함에 대해 더 자유로운 견해를 가지고 있었는데, 음란함이 요리할 때 접시를 망칠 정도로까지 확대될 수 있었고, 남편이 그 측면에서 음란함을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논쟁은 언제 이혼증명서를 쓰는 것이 합법적이고, 언제 합법적이며, 언제 무언가가 음란한가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24장 1-4절의 맥락을 읽으면서 그 맥락이 얼마나 특정했는지 주목하셨으면 합니다.

이것은 이혼에 대한 일반적인 가르침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재혼이 금지되는 경우에 대한 가르침이었습니다. 따라서 음란함으로 인해 이혼이 발생하고, 그 여자가 다른 남자와 결혼하고, 그 결혼이 이혼이든 사망이든 끝나게 되면, 첫 번째 남편은 아내를 다시 데려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의미가 첫 번째 남자가 어떤 식으로든 이익을 얻거나 이익을 얻는 것이 허용되지 않고, 그 여자에 대한 청구권이 없으며, 첫 번째 남편은 이제 아내에 대한 청구권이 없고, 그녀가 아내로서 돌아올 것으로 기대합니다.

사실, 신명기의 법의 전체 맥락은 최악적인 행동이 미칠 수 있는 해악을 완화하거나 완화하기 위해 마련된 보호 조치가 있습니다. 저는 어떤 것이 적절한지, 적절하지 않은지를 판단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신명기 23:24, 24절을 보면, 이것은 우리 본문 바로 앞입니다.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가면 원하는 만큼 포도를 먹어도 되지만 가방에 넣지 말아야 합니다.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가면 손으로 이삭을 따도 되지만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언급도 도둑질이라는 개념을 다룹니다.

도둑질이란 무엇이고, 도둑질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글썄요, 배가 고파서 포도 몇 알을 움켜쥐고 이웃이 그걸 도둑질했다고 청구할 수 없다면 도둑질이 아닙니다. 그래서 언약 관계에서 누군가의 배고픔에서 무언가를 훔치려는 유혹은 도둑질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도움을 주기 위해 가방에 넣기 시작하면, 말하자면 수확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게 도둑질이에요. 그래서 이 조치, 이 법의 전체 조치, 그리고 도둑질일 때, 도둑질이 아닐 때, 이 상황에서 이혼한 사람이 재혼하지 못하거나 재혼할 수 있나요?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나요? 전체 맥락은

무엇이 죄이고 무엇이 죄가 아닌지 통제하고 정의하려는 입법화된 방식이며, 도둑질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도둑질이고 무엇이 도둑질이 아닌지 말하려는 것이고, 이혼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에서 남자들이 아내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보호하는 것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적어도 24장의 맥락에 대해 생각하는 것이 흥미롭다고 생각합니다. 24장의 맥락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서로 언약을 맺었지만, 죄와 죄와 악의 존재에 대한 현실을 헤쳐 나가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단순히 모세가 이혼 증서를 허용했다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대답하십니다. 당신의 마음이 완악해서, 다시 한번 모세가 말하고 있는 사람들과 바리새인들을 함께 찾으시며, 그는 당신에게 이 계명을 썼습니다 .

그래서, 여기서 질책을 받거나, 교정을 받는다면, 그들은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거의 양보처럼 주어진 성경의 한 부분을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 구절이 존재하는 이유가 사람들이 하나님의 지시에 저항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것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창조의 시작부터, 예수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고 말합니다. 그가 여전히 모세 안에 있다는 것을 주목하세요. 이 참조는 여전히 모세에게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모세가 뭐라고 했는지 물었을 때, 비판의 일부는 그들이 모세가 쓴 모든 것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모세가 이혼에 대해 한 말은 보고 있지만, 모세가 결혼에 대해 한 말은 보지 않습니다. 창조의 시작부터, 하나님은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 1장과 2장이 여기서 작용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므로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아내를 붙잡고, 둘은 한 몸이

되어 더 이상 둘이 아니라 한 몸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합하셨으니 사람이 갈라놓지 못하게 하라.

그래서, 이혼이 합법적인가에 대한 이 질문에 대해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은, 글썄요, 먼저 결혼이 왜 그런지 생각해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혼, 남성 과 여성의 결합은 하나님의 창조 설계의 일부입니다. 그는 인류를 두 사람이 하나가 되도록 창조하셨습니다.

그는 남자와 남자를 창조하지 않았고, 여자와 여자를 창조하지 않았고, 심지어 어떤 종류의 남자, 여자, 남자, 여자를 창조하지도 않았고, 두 개의 분리된 것을 창조했습니다 . 단순히 분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두 개의 분리된 것이 하나의 육체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결혼의 그 설계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는 하나님의 설계의 구조에 짜여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일체성으로, 그러므로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아내를 굳게 붙잡을 것이다. 그러므로 결혼이라는 개념은 어머니와 아버지의 가족 단위에서 벗어나 남편과 아내의 새로운 가족 단위로 가는 것이다. 그러므로 전체 설계도 떠나고 나서 합류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가 이혼에 대한 이 문제에 대해 말할 때, 창조될 것 중 하나는 남성과 여성, 아버지와 어머니의 중요성을 알아차리는 것이다. 이 쌍은 계속되지만, 이 쌍은 이제 존재론적으로 하나로 여겨진다.

그들은 하나의 살이 됩니다. 그들은 이제 하나의 몸, 하나의 단위로 여겨집니다. 그것은 이혼을 이 생각으로 만듭니다. 마치 절단에 비유적으로, 그들이 함께 있는 두 개의 별개의 몸으로 여겨지지 않고, 이제 하나의 몸으로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합하신 것, 즉 남자와 여자의 결합을 의미하는 것은, 사람이 이 상반된 관계 속에서 이혼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혼 증명서를 주는 것은 인간적인 명칭이었지만, 이 둘은 이제 분리되어 있습니다. 9절의 의미는 인간, 사람이 하나님께서 권위적 맥락에서 합하신

것을 분리할 권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여기 어디에도 예외 조항이 없습니다.

포르네이아 를 제외하고 이혼을 허용하는 것으로 삽입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마가가 전달하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이혼에 대한 전체 가르침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포르네이 아는 성적 부도덕입니다. 그가 전달하려고 하는 것은 바리새인들이 마음의 완악함에 사로잡혀 예외 양보와 그것이 의미하는 바를 구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원래 의도가 무엇인지가 아닙니다. 마가복음 전체에서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이 인간의 전통과 인간적 고려 사항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제쳐놓았다고 비난받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제,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제자들이 더 많은 정보를 얻고 있는 이 부분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 구절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집에서, 다시 한 번 비밀리에, 제자들은 그에게 이 문제에 대해 다시 물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누구든지 아내를 이혼시키고 다른 사람과 결혼하면 간통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가 남편을 이혼시키고 다른 사람과 결혼하면 간통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이 예수님이 정확히 무슨 뜻인지 묻는 추가 진술을 얻었고 , 그가 제시하는 것은 서면 인간 이혼 증명서가 발급될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 결혼이 지금 이혼되었다고 인정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마태 복음에서 예외 조항이 등장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의미는 그들이 여전히 결혼한 상태이며, 인간적인 관점 에서 이혼을 허용 하는 것은 신의 관점에서 간통을 초래한다는 것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여인도 여기에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헤롯 안티파스와 헤로디아스 , 그리고 헤롯 빌립과의 이별을 언급할 수 있습니다.

이혼에 대한 이 부분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여기서 제기되는 것 중 하나는 종교 지도자들이 그들의 인간적 전통에 따라 저지르도록 허용한

죄의 쌍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미 그들이 코르반을 선언함으로써 어머니와 아버지를 공경하는 환상을 깨도록 허용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들의 체계가 허용한 계명의 일부입니다. 우리는 이미 안식일에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죽이려는 욕망으로 안식일을 위반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안식일에 합법적입니다. 우리는 그들이 실제로 안식일을 이용하여 신의 의도 대신 인간의 의도를 촉진한다는 비난을 받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저는 그들이 인간의 이혼 전통에 더 관심이 있기 때문에 간통이 일어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남자가 포르네이아가 아닌, 성적 부도덕이 아닌 음란함으로 인해 누군가와 이혼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쟁조차도요. 따라서 성적 부도덕이 아닌 이혼을 허용하는 것은 당사자들이 여전히 신성한 관점에서 서로 결혼한 상태일 때에도 마치 더 이상 서로 결혼하지 않은 것처럼 행동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 종교 지도자들이 십계명을 어기는 것을 허용하는 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했는지에 대한 쌍임을 얻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이 계속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저는 이것이 예수님이신 분이라고 생각하고, 마가는 우리가 모이기를 원합니다.

좋습니다. 여기서 계속하여 마가복음 10장을 살펴보겠습니다. 13절에서 16절까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아이 또는 아이와 같은 자세나 믿음과 관련된 제자도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우리는 방금 남편과 아내, 아버지와 어머니에 대해 이야기했고, 이제 아이들에 대해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가정의 은유 안에서 일하고 있지만, 저는 사회적 지위에서 아이들이 어떤 존재인지 기억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가 만지시기를 바라며 아이들을 데려왔고, 제자들은 그들을 꾸짖었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그것을 보시고 분노하시어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사람들에게 속합니다.

진실로 ,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지 아니하는 자는 결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리고 그는 그들을 팔에 안고 축복하시며 손을 얹으셨다. 우리가 이 설정을 볼 때 흥미로운 점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여기서 제자들이 사람들이 아이들을 예수께 데려가는 것을 거부하는 입장을 취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정말 가혹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아이들을 다시 생각해 보면, 크리스마스 때 산타 무릎에 앉으려는 순진한 아이들, 그저 순수한 기쁨의 덩어리라고 생각할 때 말입니다. 글썄요, 고대 세계에서 아이들은 사회적 지위가 너무 낮아서 아이들이 예수와 같은 인물과 함께 하려고 나온다는 생각은 너무나 단절된 것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하는 일은 그들이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적절한 사회적 지위를 가진 사람이라는 사전 자격 조건을 스스로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그것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사전 자격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

그리고 마가가 아이들을 어떻게 소개했는지, 그가 사회적 지위의 측면에서 예수가 분노하는 이유를 우리가 이해하기를 원하는 방식을 이해한다면, 그가 무고한 아이들이 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사회적 지위가 낮은 사람들이 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의 면전에 누가 있어야 하는지에 대한 결정을 내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이것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했을 때 그에게 가한 비판과 정확히 같습니다. 그들은 그가 부끄러운 사람들과 함께 식사를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제자들은 거의 같은 일을 다른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누가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 옳은지, 누가 그렇지 않은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그들이 군중과 바리새인들과 더 가까워졌다는 것에 대해 끊임없이 대화하신 데서 비롯됩니다. 그들 주변에는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고 조심해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는 강인함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똑같은 활동을 하는 방법의 한 예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분노한 것은 당연합니다. 마가는 예수의 인간적 감정을 매우 잘 표현하고 있으며, 여기서 우리는 이에 대한 좋은 예를 볼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내게 오게 하라. 그들을 막지 말라. 이런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왕국이 속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나는 이것이 어떤 모양이나 방식, 형태로든 회심의 시대나 소속의 시대, 유아 세례에 대해 말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 구절에서 그런 것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런 사람들, 병든 사람들, 버림받은 사람들, 권리를 박탈당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누가 말했듯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속합니다. 그리고 15절의 진술은 영어로는 끈이 있는데, 그리스어로 보면 정말 볼 수 있습니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께서 매우 단호한 진술을 소개하기 위해 자주 사용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지 아니하면 들어가지 못하리라. 사용된 어구는 강조를 강조하기 위해 그리스어로 진술을 구성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가장 강한 강조가 이루어질 수 있는 특정한 구조가 사용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처럼 받지 않는 자는 결코 들어가지 못하리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리스어를 공부한 사람이라면 동사에 *oo* 와 *may* , 그리고 가정법이 있습니다. 여기서 강조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강력한 진술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가 말하고 있는 것이, 순진한 아이 같은 믿음을 가지고 오지 않는 사람은 누구든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님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제 불신을 도와주세요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지위를 가장하지 않고 오지 않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예수님께 와서 “나는 누군가다”라고 말하는 것은 불충분하고 자격을 박탈하는 믿음입니다. 어린아이처럼 오는 사람만이 자신이 낮고 약하며 하나님께 의존한다는 것을 알고 옵니다.

어린아이 같은 믿음은 순진한 믿음이 아니라 겸손한 믿음입니다. 시로페니키아 여인을 기억하세요. 그녀는 개들도 아이들에게서 부스러기를 받는다고 말했을 때 이것을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그녀의 진술을 확증하셨습니다. 믿음에 대한 확증은 항상 예수께 나아가는 것, 예수께 의지하는 것의 더 강력한 것으로 예수를 확증하는 것이지, 자신의 가치를 선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9장 전체에서, 그리고 여기 10장에서는 실패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가치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사회적 가치, 지위 가치, 예수님 주변에 있는 것의 측면에서 자신과 이 아이들 사이에 차이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종종 인정되는 것보다 제자들에게 더 어려운 교육 방법입니다.

여기서 소개만 하고, 마가복음 10장 10-17절부터 31절까지 나머지 부분을 논의해 보겠습니다. 다음 섹션으로 넘어갈 때 이 내용 중 일부를 다루어야 하겠지만, 저는 시작하고 싶습니다. 예수께서 여행을 시작하실 때, 어떤 사람이 달려와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선한 선생님, 제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흥미로운 질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를 찾는 부자의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흥미로운 질문은, 영생을 상속받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입니다. 종종 우리가 하는 것과 상속받는 것에 대해 생각할 때, 이것들은 완전히 다른 현실입니다. 당신은 태어났기 때문에 상속받는 것이지, 당신이 무언가를 했기 때문에 상속받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의 상속 재산을 잃을 무언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이디어의 일부입니다. 이 개념에서 이스라엘은 상속 재산을 받도록 선택되었습니다.

제2성전 유대교는 은혜를 이해했습니다. 이스라엘을 선택하는 데서 은혜를 이해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의로움에 대한 행위적 이해만 가지고 있다는 생각은 사실 전적으로 옳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이 이 유산과 영생의 유산을 받기 위해 선택되었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약속과 모세와 약속의 땅, 다윗 왕국으로까지 확장될 약속의 혼합입니다. 그것은 종말론적 입증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전체 그림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들어갈 권리를 얻는다는 생각은 없었지만, 그곳에 머물기 위해서는 해야 할 일과 복종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살 권리에서 제외될 수 있었습니다. 법을 어기면 쫓겨날 수 있었고, 사람들로부터 파문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 질문은, 제가 종말론적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그룹의 일원임을 보여주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래서, 그 그룹은 상속받을 것입니다. 그 그룹의 일원이 되기 위해 제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흥미롭네요. 그가 예수를 시험하러 온다는, 그를 함정에 빠뜨리려고 온다는 표시가 전혀 없습니다.

이것은 바리새인들이 아닙니다. 이것이 전개되는 방식은 이것이 진정한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는 대답합니다. 왜 나를 선하다고 부르십니까? 하나님 외에는 선한 사람이 없습니다.

이 아이디어는 매우 흥미로운 연극인데, 그는 아마도 달려온 젊은이의 아침을 공격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는 아이러니와 스트레스의 감각을 만들고 싶어할 것입니다. 사실 그를 선하다고 부르는 것이 옳고, 그가

받고 싶어하는 것은 그 사람이 신이 선한 방식으로 당신이 선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굴하지 않고 거기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계속해서,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사람은 없습니다. 당신은 계명을 알고 있고, 그는 모든 계명은 아니지만 몇 가지를 나열하기 시작합니다. 살인하지 마십시오.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증거하지 말라.

사기하지 마십시오. 어머니와 아버지를 공경하십시오. 흥미로운 점은 예수께서 여기서 십계명의 후반부를 언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요소들은 인간들 간의 상호작용입니다. 그가 언급하지 않은 것 중 하나는 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탐욕에 대해 언급하지 않은 것은 그가 말한 것보다 침묵이 더 큰 것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는 또한 압생트에서 십계명의 첫 번째 부분을 언급하는데 , 그것은 신에 대한 헌신을 다룬다. 그래서 그는 계명을 인용할 때, 신을 공경하는 것과 탐욕스러운 것에 초점을 맞춘 것들은 침묵시키고, 그 사람이 젊어서부터 지켰다고 대답하는 다른 것들에 대해 말한다. 그리고 예수는 그를 바라보며, 이렇게 그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그가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 가지고 있는 언급이 아니다. 그를 사랑하고 말씀하셨다. 너에게는 한 가지가 부족하다.

가서 네가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물을 얻을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와서 나를 따르라가 제자 훈련 부름에서 그가 사용한 것과 똑같은 언어라는 것을 알아두세요.

다른 언어는 없습니다. 또한, 예수께서 “가서 네가 가진 것을 팔아 내 사역에 기부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점에 유의하세요. 예수님은 이것에서 아무런 가치도 얻지 못하십니다.

그래서, 남자조차도 그것을 팔아서 아마도 그것으로부터 이익을 얻을 기회가 없습니다. 그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사회의 낮은 지위입니다.

그는 부를 가지고 있고, 그들은 가지고 있지 않으며, 그는 또한 자신을 용서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것은 예수께서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명령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볼 때, 질문은,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당신에게 한 가지가 부족하다고 하십니다.

그 남자는 방금 모든 계명을 지켰다고 말했지만, 그에게 한 가지가 부족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에게 해야 할 일에 대한 계명을 주었습니다. 당신은 이것들을 해야 합니다. 그는 그 말에 낙담하여 슬퍼하며 떠났습니다. 그는 많은 소유물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는 예수가 주신 계명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그는 그것을 언급하지 않았습니까. 그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계명을 언급하지 않았습니까.

그는 탐욕의 계명을 언급하지 않았습니까. 계명이 있기 전에는 이 사람이 십계명을 따르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자신의 열망을 표현하기 위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을 행하려고 했습니다.

그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순종했다면, 그는 영생을 얻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고 싶어했고,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을 순종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것은 가서 팔고, 탐욕과 부에 대한 욕망에서 이혼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그것을 할 수 없었습니다.

매우 슬픈 이야기인데, 그는 엄청난 부를 가지고 있었고, 예수는 그를 사랑했지만, 그는 그 부를 내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말에 낙담하여 그는 떠났습니다. 예수는 주변을 둘러보시고 그의 제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부를 가진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란 얼마나 어려울 것인가.

제자들은 그의 말씀에 놀랐다. 그러나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아이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 구멍을 통과하는 것이 더 쉽다.”

그리고 그들은 꺼지고, 매우 놀라서, 그에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누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그리고 심지어 누가 구원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그 질문에서도, 우리는 여기서 마무리할 것입니다, 제자들은 아마도 당황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명예와 지위의 감각에서, 부를 가진 사람, 겉보기에 독실했던 사람은 부를 신이 그에게 준 축복으로 볼 수 있는 지위를 가졌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만약 부를 가진 사람들이 부를 분리하고, 부의 중요성을 분리하고, 그것을 모두 기꺼이 주어야 하는 것이 요구 사항이라면, 제자들에게는 그것은 불가능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들 스스로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버린 사람들로써 여기 있지만, 예수님이 요구하는 것에 놀라며 소멸합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이것을 이어가고, 낙타 속담에 대해 이야기하고, 다음 시간에 10장과 11장의 나머지 부분으로 넘어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은 마가복음에 대한 그의 가르침에서 마크 제닝스 박사입니다. 이것은 세션 16, 마가복음 9.30-10.31, 제자도, 이혼, 자녀, 부자 통치자입니다.